

# 거리문화축제·달빛음악회 열어 컨벤션 효과 높인다

### 亞문화전당 내달 25일 정식 개관 ... 행사 어떻게 준비되나

내달 25일로 예정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개관을 앞두고 민주평화교류원 조성 공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광주시는 문화전당 전면개관에 맞춰 컨벤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거리문화축제, 문화재단의 축하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부서별로 전담반을 꾸려 교통·숙박, 관광 등 현안을 챙기고 있다.

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에 따르면 현재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민주평화교류원의 모든 공정이 오는 11월 중순께 완료된다. 지난해 말 문화전당 신축건물(어린이문화원, 정보원, 창조원, 예술극장) 준공에 이어 민주평화교류원 공사까지 마무리되면 사실상 문화전당의 모든 인프라가 갖춰지게 된다.

지역과 세계, 민간과 정부 차원의 문화예술교류 기능을 갖춘 민주평화교류원은 옛 전남도청 등 보존건물 6개 동(옛 전남도청 본관, 경찰청 본관, 민원실, 회의실, 상무관, 도청별관)을 리모델링해 탄생하는 공간이다.

방선규 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민주평화교류원 리모델링 작업은 11월 중순 마무리되며, 콘텐츠 구축 작업도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교류원에서 선보일 전시콘텐츠는 ‘빛의 정거장 광주, 민주주의의 광원(光淵)’을 주제로 만들어졌다. 빛의 도시, 광주가 찬란한 민주주의의 모태가 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형상화한 개 대표적인 개상설 전시되는 ‘열흘간의 나비떼’다.

‘열흘간의 나비떼’는 반대과정을 거친 뒤 화려하게 사라지는 나비와 같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시

## 민주평화교류원 중순 마무리 市, 빛고를 남도투어 운영 추진 홍보 등 실국별 지원팀 가동

민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뜻을 녹여낸 전시 콘텐츠의 핵심 개념이다.

전시는 광주항쟁을 역사적으로 재현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술적 시각으로 조망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관람객들이 감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문화전당측은 공식 개관에 맞춰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다. 현 상태라면 당초 목표했던 전시·공연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100% 까지 채워넣을 수 있을 것으로 문화전당측은 내다보고 있다.

시는 문화전당 개관을 기념해 달빛음악회, 전당 주변 거리문화축제, 아시아문화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화전당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빛고를 남도투어, 광주시티투어, KTX 아트투어 남행열차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체계적으로 문화전당 개관을 지원하기 위해 대변인실(홍보), 국제교류협력단(해외 자매도시 교류), 환경생태국(꽃거리 조성), 교통건설국(불법주정차 단속), 도시재생국(불법 광고물 단속) 등 실국별 지원팀을 가동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통일축구대회 기원합니다”

28일 김포국제공항 계류장 이스타항공 ZE2185편 특별 전세기 항공기 앞에서 ‘남북노동자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단, 이스타항공 승무원들이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남북 노동자축구대회 8년만에 평양서 ... 162명 방북

1년8개월 만에 이뤄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이어 평양에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8년 만에 열린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양대 노총 대표단 162명은 이날 낮 12시30분 이스타항공 전세기편으로 서해 적항로를 이용해 방북한다.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하는 이들은 31일까지 3박4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한다. 1999년 평양에서 처음 열린 남북노동자축구대회는 2007년 경남 창원에서 한차례 열린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양대 노총의 이번 방북 인원은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2010년 5월 취해진 5·24 남북공동조치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광주복지재단·문예회관 등 용역업체 노동자 300명

## 광주시, 내년부터 직접고용 전환

### ‘실무 TF’ 구성 순회 설명회

광주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노동자 300명이 내년 1월 직접고용으로 추가 전환될 예정이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 용역 기간이 끝나는 25개 기관 3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내년 1월 1일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된다.

대상 기관은 CCTV 통합관제센터, 도시철도공사, 광주복지재단,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각 소방서 등이다.

광주시는 이들 기관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을 위해 노무사와 연구원 등 7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무 TF’를 구성해 이날 CCTV 통합관제센터, 보건환경연구원을 시작으로 기관 순회 설명회에 들어가 고용형태 전환 계획, 개별 근로

여건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2월 시 본청 74명, 7월 김대중컨벤션센터 71명, 9월 도시철도공사 276명이 직접 고용됐다.

300명이 추가되면 시 출자·출연·직속 기관, 사업소, 공사, 공단 등 지역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80% 이상의 고용형태가 바뀐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해당 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는 모두 896명이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조와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공공 협약’을 체결했다.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 생활임금(2016년 기준 시급 7839원)제도도 적용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충북가 일본여행**

**무안(광주) ↔ 기타큐슈 직항**

**2015년 10월 9일(금)~12월28일(월)**

**패턴 : 매주 목(2박3일) / 토(2박3일)출발**

스케줄 : 무안(5:00) → 기타큐슈(06:10), 기타큐슈(01:50) → 무안(02:50)

항공기 :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30석

**비행기로 (월) 799,000원에 관다!~**

## 아·태 스카우트 총회 내달 광주서 열린다

### 40개국 700명 참여 3~8일 DJ센터 지역 이미지 제고·경제 활성화 기대

아시아·태평양 스카우트 최고 의결기구인 제 25차 아·태 스카우트 총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총회는 다음 달 3일부터 8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성장’(Growth toward unity)을 주제로 열린다. 국내에서 총회가 열린 것은 1968년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한국에서는 47년 만이다.

세계 스카우트 아·태 지역 연맹이 주최하고 광주시와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총회에는 40개국 700명이 참여한다.

총회는 3년마다 아·태 지역 회원국 대표단이

모여 스카우트의 사업보고, 정책 결정, 이사 선출, 주요행사 개최지 선정 등을 의결하는 기구다.

특히 2023년 열리는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한국(전북)과 폴란드가 치열하게 유치 홍보전을 펼칠 전망이다. 회원국 대표단장 회의, 그룹 토론, 활동사례 발표와 함께 문화 투어, ‘광주의 밤’ 행사 등도 예정됐다.

광주시는 이번 총회가 인원과 평화, 국제회의 도시 광주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중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각국 지도자들과 공유해 발전적인 청소년 교육정책이 완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효령복지타운 등 2곳에 ‘나눔의 숲’ 조성

### 녹색자금 3억3000만원 확보

광주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 등 2곳에 자연과 복지가 하나 되는 ‘나눔의 숲’이 조성된다.

광주시는 녹색사업단이 시행한 ‘2016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3000만원을 지원받겠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된 시설은 효령노인복지타운과 광산구 한빛 노인전문요양원으로, 녹색자금 3억3000만원을 들여 5400여㎡ 규모의 나눔의 숲이 조성된다.

노인과 어린이들이 함께 산책하고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숲과 왕벚나무 숲길, 왕룻 산책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파고라를 정비하거나 새로 설치하고 부족한 벤치도 대폭 확충한다.

이 녹색자금은 복권판매 수익금인 복권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 문화휴양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만큼 ‘나눔의 숲’으로 불린다. 광주시는 신청을 받아 현장심사 등을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노원기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소외된 이웃과 지역주민이 함께 휴식하고 치유할 수 있는 나눔의 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북큐슈/야마구치 3일** (목)성인/599,000원 어린이/569,000원 (토)성인/679,000원 어린이/649,000원

**기타큐슈/나가사키/하우스템보스 3일** (목)729,000원 (토)769,000원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지마 3일** (목)679,000원 (토)749,000원

**골프 야마구치 조요C.C/아사C.C 3일(36홀)/4일(54홀)** (월)(목)(토) 779,000원

**벳부/오이타 올레길 [3일] [4일]** (목)(토) 499,000원 ~ 769,000원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JOY TOUR CO., LTD**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 234-3222

Fax. (062) 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